

선(線)에 의한 직관세계와 조형적 표현 연구

A Study on the Intuitive World and Formative Expression by Line

안미연¹

Mi-Yeun Ahn¹

요 약

오늘날 온라인 매체와 디지털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의 창작방식도 기계화 되면서 회화에 기초가 되는 선의 표현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적 표현은 예술창작 표현방식의 일환으로 직관과 미메시스적으로 구별하여 그 차이에 대한 인식과 표현과정을 다루고 있다. 직관적 세계와 대상물의 외형을 시각화하여 재현적 표현에 따른 조형연구는 예술로서 형상화 되고 있다. 이처럼 선에 의한 표현은 단순히 대상을 직관적으로 형상화 하는 것과 외형적 묘사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선에 조형적 표현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화 되고 있는 현대미술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고전적 회화구성 방식인 선에 대한 인식개념을 동서양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직관적 표현과 미메시스에 따른 형상적 표현을 예술 작품으로 확인하며 고전적 예술표현의 일환인 선적 표현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현대미술 안에서 창작 방식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핵심어 : 선(線), 직관적, 미메시스, 형신(形神), 재현

Abstract

In recent days, as the art creation patterns are mechaniz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in online media and digital technologies, it is more critically required the expression of line that becomes a base in the painting. The expression of lines is a part of the art creation expression method, and it handles the recognition and expression processes of the difference by separating them from intuition and mimesis-like. In addition, by visualizing the intuitive world and the appearance of the objects, it is artisticiz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spiritual world in a formative language. In this way, the expression by line explains that the formative expression itself can be a work of art, beyond simply expressing the object intuitively and being used as a tool for expressing the appea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now dividing the perceptual concept of line, which is a classical composition method in painting maintained even in modern art that is being digitized, into the East and the West. It confirms the shape expression according to intuition and mimesis as works of art and reveals that it continuously plays a role as a source of creation methods within modern art where the expression of lines is digitized.

Keyword : Line(線), Intuition, Mimesis, The Shape and Spirit theory, Representation

¹ Departmenr of Dasan 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Suwon-si, Korea [Lecturer]
e-mail: jubu18@naver.com

* 본 논문은 2021년도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Received(June 27, 2022), Review Result(1st: July 15, 2022), Accepted(September 8, 2022), Published(September 30, 2022)



© 2022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오늘날 예술을 창작하는 방식은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재료와 매체에 의해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현저히 발달된 지금 디지털 매체와 컴퓨터의 활용은 예술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패드를 활용한 드로잉작품을 선보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업을 보면 앞으로의 예술이 디지털 매체로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방향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의 미술은 더 이상 고전적인 회화방식을 고수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작품을 제작할 때 선적 표현을 기초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림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고전적인 표현 방식은 바로 선(線)과 색채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 중 선적 표현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선에 의한 표현은 작품을 창작하는 출발점으로서 동서양 모두 비슷한 형식을 취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표현방식을 달리한다.

먼저 동양예술을 선두하고 있는 선은 모필(毛筆)이란 매체를 거쳐 화면 위에 무한한 직관세계의 감수성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모필은 습식 매체로서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붓에 의한 표현은 매우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선묘를 구사해 낼 수 있다. 한편 서양에서도 선의 표현은 형상을 구현해 내는 것으로 모필과 같은 재료(유화나 아크릴등)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연필, 목탄, 펜 등 수정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재료로 사용된 선, 즉 드로잉은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작용하며 논리적인 소요력을 요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된다. 이에 반해 모필에 의한 선적 표현은 종이라는 표면위에 감각적으로 묘사되며 수정 불가능하다는 점이 직관적 표현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화 되고 있는 현대미술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고전적 회화구성 방식인 선에 대한 인식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예술작품을 통해 그 차이와 내용을 고찰하는 대에 목적을 둘 것이다.

2. 동. 서양의 선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과 서양의 선에 대한 인식방식은 사용하고 있는 매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방식이 예술표현에서도 서로 다른 창작론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상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내거나 혹은 객관적, 논리적인 드로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1 모필(毛筆)의 직관적 표현

일찍이 중국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왕미(王微)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 자루의 붓으로 태허의 본체를 그려내는 것이다 [1].” 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곧 예술창작이란 단순히 대상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험과 느낌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자연만물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은 동양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한 자루의 붓’인 매체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대부터 동양의 화가들은 예술을 창작하는 것은 작가의 직접적 경험과 사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창작 주체의 심리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사를 필묵의 선을 빌려 예술 형상으로 만들 때에만, 비로소 심미 효과를 낼 수 있다 [1].” 이 말은 화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반드시 묘사한 형상에 감성과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관찰과 직접적 경험, 그리고 사색을 통한 예술창작 과정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매우 직관적으로 결론지어 진다는 점이다.

화면위에 구현된 동양의 선은 실재로 존재하는 대상의 외형을 완벽하게 복제하지 않는다. 예술의 객체를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화가의 정신세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한비자(韓非子)의 이론에서 형태에 대한 묘사와 닮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직관적으로 표현된 선은 화가의 창작세계를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대변할 있는 표현 도구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붓이라는 매체의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은 이러한 직관적 표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회화매체인 붓은 먹이라는 재료와 물이 섞인 안료를 사용하는데 매우 부드럽고 모필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처음에는 다루기 힘들지만 손에 익숙해지면 표현력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을 구현해 낼 수 있다. 또한 붓에 힘 조절을 통해 선에 강약을 자유롭게 구성해 할 수 있으며 먹의 농담을 통해 개성적으로 묘사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붓은 매우 직관적이 예술표현 방식의 매체라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모필에 의한 화면위에 표현된 필선을 ‘외형적인 닮음(形似)’ 과 ‘정신적인 닮음(神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적 체계는 이미 동양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예술적 관점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전해져 왔다. ‘외형적 닮음(形)’이란 예술화 할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한 조형적 선의 표현기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정신적 닮음(神)’이란 객관적 사물이 화면위에 표현될 때 화가의 정신과 심리상태가 필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동양에서는 조형적인 부분과 정신적 심리 상태가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진 예술작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바로 서양의 창작 방

식과 구분 되는 독특한 창작방식이라 할 수 있다.

2.2 드로잉적 미메시스표현

예술의 객체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을 서양미술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고전적인 특징이다. 현재의 서양회화가 추구하는 창작방향의 폭이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아카데미즘적인 형상묘사의 방식은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 이를 미메시스(mimesis)라고 특징 지었으며, 회화에 대한 최초의 표현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화가들이 사물을 모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케 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진실은 관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형을 묘사하는 것은 단순한 베껴 그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즉 미메시스의 표현, 모방적 표현은 대상물의 진의보다는 외적인 ‘형상의 닮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의 외형적 닮음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모방’이라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화가들도 우선적으로 무언가를 ‘닮게 그린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림 1]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태고지를 위한 드로잉, 1470-75년경

[Fig. 1] Leonardo da Vinci, Woman's head, 1470-75

서양의 회화 매체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벽화를 그릴 때 다루는 프레스코화나 유화를 사용하기 전에 대상을 드로잉으로 밑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1]은 드로잉 밑 작업을 보여주는 예시 작품이다. 드로잉에 사용 되는 재료는 주로 연필, 목탄, 콘테, 펜 등등 인데 이 재료들은 대부분 건조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건조한 재료를 사용하여 구성된 선은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

할 수 있으며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건성재료인 이 도구들은 대상의 외형을 똑같이 묘사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세밀한 세부 표현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선은 작품을 표현하는 기초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동양의 회화매체와 매우 상반된 묘사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의 객관적 표현들은 수학적 비례와 과학의 발전을 통해 외형적 표현이 더욱 견고해 지게 되었으며 예술의 객체를 분할하고 시각화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황금분할’로 알려져 있는 기하학적 비례는 수 세기 동안 예술의 신비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3]. 이러한 인식을 통해 미메시스적인 표현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직관과 재현에 따른 표현연구

직관에 의한 선의 구성과 미메시스적인 표현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실제 작품에서 예술화되어 나타나는 형상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세계를 재구성 할 수 있다. 즉 예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편집, 재조합, 혹은 이상화하여 작품으로 형상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순수한 감정이 반영된 직관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혹은 시각적 재현에 의한 조형적 표현 방식으로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3.1 순수 감정의 직관표현

창작을 하는데 있어 예술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감정적 교류를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가의 마음속에서 순수한 즐거움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일컬어 ‘흥(興)’이라 한다. 흥이란 순수한 감정적 표현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나타내며, 예술화 하는데 있어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동양의 화가들이 이 흥의 감정을 통해 현실세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흥에 대한 인식은 갈립방(葛立方)이 말한 “경물을 보고 느낌이 생기면 이내 흥이 생긴다.”, 혹은 심주(沈周)의 “산수의 빼어난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잘 담아 두었다가 필묵으로 그려내며, 흥이 아닌 것이 없다 [4].”라고 언급해 놓고 있다. 이는 흥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흥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창작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명나라 때 활동했던 화가인 서위(徐渭)의 [그림 2]의 작품을 보면 필묵에 의한 직관적 표현기법이 매우 독창적으로 나타나 있다. 왼쪽에 그려진 검은 바위는 흰 바탕과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바위에서 피어난 매화와 대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표상하고 있다. 또한 거칠게 표현된 바위와 유연하고 부드럽게 묘사된 대나무와 매화의 필선이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이처럼 강한 표현과 부드러운 묘사의 조화는 화면구성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보는 이에게도 시각적 자극을 통해 색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림 2] 서위, 초석매죽도(焦石梅竹圖), 명

[Fig. 2] Xu Wei, black stone plum and bamboo, Ming Dynasty

서위의 그림처럼 선에 의한 형상을 구현할 때 화가 자신이 이미 예술화의 대상과 교감을 통해 내적 흥이 발휘되어 있는 상태이고, 화면위에도 이런 심리적 상태가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흥은 예술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흥이 있어야 예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흥과 같은 순수한 감정에 의한 형상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동양에서는 창작자가 순수한 흥의 감정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에 중요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는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필수 조건인데 화가의 평소의 심리상태, 즉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에 따라 그림의 품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화가는 자아성찰 혹은 내적 수양을 해야하며 자신의 감정을 가장 평정한 상태로 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화가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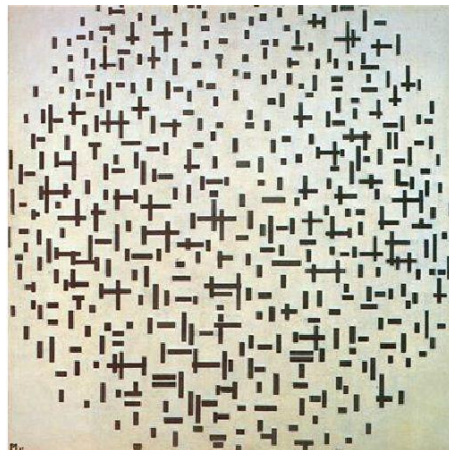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동양에서 의미하는 순수한 감정의 흥은 개인의 욕망이나 아집은 배제된 상태의 표현이며 직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다.

3.2 시각적 재현과 형태표현

플라톤이 미메시스를 한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미메시스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세계를 모방하는 것은 지적인 활동 [5]을 가능하게 하며 외적대상을 배우고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시각적 재현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선에 의한 재현적 표현은 객관적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형태표현으로 적절히 구현해 놓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는 선을 통한 시각적으로 재현은 예술화의 객체를 조형적 형상물로 보여준다는 것이며 대상을 예술적으로 복제해 놓은 것 이상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과 객관적 탐구는 선을 통한 시각적 재현에 있어서 이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근간으로 현실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선에 의한 시각적 재현은 대상을 복제하는 것에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닌 비가시적인 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에 의한 이성적 시각의 재현은 가장 기본적인 미의 원천으로서 서양화가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예술활동의 표현방식이다.

대상을 모방의 방식으로 형상물로 재현했지만 단순히 닮게 만든다는 차원이 아닌 화가의 창작력이 반영된 예술적 산물이라는 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즉 모방이든 시각적 재현이든 이러한 방식을 출발로 하여 예술작품이 만들어지고 단순히 복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간주 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이 인식한 모방의 개념에서 더욱 발전적 의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피에 몬드리안, 선의 구성, 1916

[Fig. 3] Piet Mondrian, Composition in line, second state, 1916

시각적 재현에 따른 형태표현은 [그림 3]의 몬드리안(Piet Mondrian) 작품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몬드리안은 미술이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나은 영역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6]. 이러한 깨달음은 직선과 수평이라는 선의 조형 방식을 통해 자연물을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완성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화가의 객관적 대상물을 경험에 대한 느낌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의 몬드리안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짧게 표현된 선들은 기존의 르네상스식의 드로잉의 선적 표현은 아니지만 자연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재현해 놓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을 창작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작품은 내적인 요서와 외적인 요소로 성립 [7]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메시스의 시작은 대상을 정확하게 똑같이 묘사해 내는 것이었다면 그 개념이 시대를 거쳐 점차 변화되어 새로운 인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현대의 예술창작 방식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다양성을 통해 작품의 제작 방식과 표현영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고전적인 회화표현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선은 직관적으로 혹은 모방의 형상으로서 화면에 등장하며, 평면 위에 구성된 선은 화가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회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각적 재현이든 순수한 감정의 결과물이든 간에 선이 가지는 의미와 표현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선은 가장 기본적이고 다루기 쉬운 매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포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자루의 붓으로 모든 삼라만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화가는 붓을 통해 선으로서 자신의 예술관을 끝없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적인 부분일 것이다.

현대의 예술영역에서 작품을 창작해 내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매체라든지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는 예술이라든지 등등 그 속도도 점차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느냐 현실에 안주하느냐에 따라 예술가의 활동영역도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선, 색채, 형태, 화면구성 등등 이러한 요소들은 마땅히 가지고 가야할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예술적 산물이기에 아직 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이 회화의 구성요소로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선의 표현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하였지만 사실 동양에서는 선적 표현을 더욱 확장된 의미로 세분화하여 다루기 때문에 아직 해결하기 못한 내용적 측면들이 남아있다. 특히 이론적인 부분에서 작가의 예술 창작론이 그것이다. 또한 오늘날 서양에서 인식하고 있는 선의 개념역시 고전적인 영역을 넘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기에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20세기

로 들어서면서 드로잉 작업들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마치 동양의 선처럼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에 대한 고정적 사고와 보편적 인식을 동서양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References

- [1] Lin De Han, Beyond the world(境生象外), Ehaksa, 2012.
- [2] Julian Bell, What is Painting, Hangilart, 2002.
- [3]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MOONYE PUBLISHING, 2007.
- [4] Zhang, Fa, Zhong xi mei xue yu wen hua jing shen(中西美學與文化精神), Purunsoop, 1999.
- [5] Laurie Schneider Adams, The Methodologies of Art, Seoulhouse, 1999.
- [6] Anna Moszynska, Abstract Art, SIGINGSA, 1998.
- [7] Wassily Kandinsky,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Youlhwadang, 1979.